

# 빅데이터 시대의 저널리즘을 얘기하다

최근 몇 년간 빅데이터가 화두다. 2011년 맥킨지는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라는 보고서에서, 또한 2012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Big Data Big Impact”라는 제하의 슬로건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를 진단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4의 물결’로 칭했다. 세계적인 IT 컨설팅사인 가트너는 향후 미래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지목해왔다.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과 정부기관 및 기업에서의 적극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오라클, IBM,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경영전략 중심에 빅데이터가 있다.

뉴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매순간 생산해야 하는 언론사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더욱 두드러진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연합뉴스와 같은 국내의 전통 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버즈피드Buzzfeed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중심에 빅데이터가 있다. 그럼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정의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Volume), 다양한 형태(Variety), 그리고 데이터의 입출력 및 분석속도(Velocity)를 강조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Value)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4Vs). 필자는 대학에서 미디어학을 전공하며 인문학/사회과학적 맥락에서 빅데이터를 강의하고 있는데, 매우 제한적인 지면을 고려해서, 빅데이터가 저널리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뉴스 생산과 전달 그리고 소비과정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뉴스 생산과정에서의 개방성의 확장과 데이터의 통합적 접근이다. 전통 저널리즘의 뉴스 생산은 정형화된 스톱 데이터에 많이 의존했다. 기자는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물론 자료접근의 어려움이거나 정보 신뢰성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자료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매우 빠르게 얻을 수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글은 매우 좋은 추가 자료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소셜분석을 통해 뉴스 내용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한, 정부기관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제는 사람들도 단순한 뉴스보도에 더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양한 데이터 속에서 정교한 분석을 통

해 매우 흥미로운 가치를 찾아낸 결과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나 언론사에게 빅데이터는 분명 시대적 요구인 듯하다.

다음으로, 뉴스 전달과정에서의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의 활용이다. 영국의 가디언이나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세계적인 언론사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된 새로운 유형의 뉴스를 매우 보기 좋은 이미지나 그래픽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뉴스를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의 전환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긴 문장의 기사를 읽기를 싫어한다. 또한 정보의 홍수시대로 뉴스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가 쉽지 않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한 장의 완성도 높은 그래픽 이미지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뉴스 가치가 높다. 최근 국내에서 ‘카드 뉴스’가 매우 많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전통 저널리즘과 차별화되는 빅데이터 저널리즘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 소비에 대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뉴스 소비는 모바일을 통한 포털 콘텐츠 이용이 대세다. 종이신문이나 텔레비전 본 방송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무료 포털 뉴스를 읽거나, 무료 방송 VOD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편리한 시간에 재생해서 본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신문 구독률이나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저널리즘 영역에서 뉴스를 포함한 콘텐츠 소비의 정확한 평가는 뉴스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다양한 소비지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